시청률 잡는 ‘OO 찾기’

‘동백꽃’ 까불이 찾고 최고 시청률
‘VIP’ 불륜상대 찾는 과정 인기
“추리의 재미 작품 관심 이끌어”

‘OO 찾기’가 드라마의 인기를 이끌고 있다.

시청자의 궁금증을 자극해 추리를 유도하면서 작품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또 다른 힘이 되고 있다. 로맨스와 멜로, 휴먼 등 장르와 소재는 달라도 그 안에 ‘추리의 재미’를 양념으로 넣는 드라마들이 최근 몇 년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연쇄살인범 ‘까불이’의 정체를 숨겨 시청자의 참여를 견인한 KBS 2TV ‘동백꽃 필 무렵’부터 남편의 불륜 상대 찾기에 한창인 SBS ‘VIP’가

KBS 2TV ‘동백꽃 필 무렵’의 한 장면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올해 초 방송한 ‘SKY 캐슬’ 역시 모범생 혜나를 죽인 범인에 대한 시청자 관심이 폭발하면서 시청률이 크게 올랐다.

‘VIP’는 주인공 장나라가 남편 이상윤의 불륜 상대를 찾는 과정이 시청률 상승의 결정적인 동력이 되고 있다. 10월28일 방송을 시작해 9.1%(이하 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한 5일 방송에서 이상윤과 이청아의 다정한 모습을 목격한 장나라의 이야기로 끝나면서 “새로운 ‘00찾기’가 시작됐다”며 입소문을 얻고 있다.

‘VIP’ 제작사 더스토리웍스의 이옥규 프로듀서는 “추리 서사는 시청자의 시선을 잡아두기 위한 중요한 방편 중 하나”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둬 시청자가 드라마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관심을 다음 회차로 이어가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OO 찾기’의 원조는 tvN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다. 2012년 ‘응답하라 1997’부터 2013년 ‘응답하라 1994’에 이어 2016년 ‘응답하라 1988’(응팔)까지 여주인공의 ‘남편 찾기’를 시도해 인기를 끌었다.

이들 드라마가 방송 도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할 때는 극중 미스터리의 결정적인 ‘힌트’가 드러나는 때라는 공통점도 있다. ‘응팔’은 2016년 1월16일 마지막회에서 드라마 최고 시청률인 19.6%를 달성했다. 방영 내내 숱한 궁금증과 추측을 낳았던 주인공 덕선(혜리)의 남편이 마침내 택(박보검)으로 드러난 순간 최고 시청률을 찍었다.

‘동백꽃 필 무렵’ 역시 동백(공효진)을 쫓는 연쇄살인범 ‘까불이’의 정체에 근접할 때마다 시청률이 크게 올랐다. 최고 시청률인 20.7%는 13일 동백의 엄마(이정은)가 까불이를 지목하는 내용에서 기록된 수치였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손예진·김태희·서현진 ‘매력 3파전’

열애설 현빈과 ‘사랑의 불시착’ 주연
서현진 ‘블랙독’ 김태희 ‘안녕…’ 컴백

공효진의 뒤를 이어 손예진·서현진·김태희가 돌아온다. KBS 2TV ‘동백꽃 필 무렵’으로 실력과 스타성을 입증한 공효진처럼 개성 강한 이야기로 시청자를 만난다.

손예진은 12월14일 첫 방송하는 케이블 채널 tvN ‘사랑의 불시착’의 주인공으로 나선다. 극중 패션브랜드 대표이자 재벌 3세 역 사업가의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북한군 장교(현빈)와 아찔한 사랑에 빠진다.

시청자의 관심은 단연 현빈과 만남이다. 지난해 영화 ‘협상’에 이은 두 번째 공동작업이라는 점보다 올해 초 두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던 점 때문이다. 정작 손예진은 데뷔 이후 20년 가까이 활동하며 맡는 첫 화려한 캐릭터, 스타작가로 불리는 박지은 작가와 호흡에 기대가 큰 눈치다. 이에 캐릭터 어울림에 공들이며 이질감 없는 표현에 집중하고 있다.

서현진은 ‘시청률 보증수표’의 기세를 노린다. 2016년 ‘또 오해영’을 통해 데뷔 이후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그는 ‘낭만닥터 김사부’ ‘사랑의 온도’ ‘뷰티 인사이드’ 등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안방극장의 새로운 30대 여배우로 급부상했다. 5연속 흥행을 목표로 삼는 무대는 12월16일 시작하는 tvN ‘블랙독’이다. 서현진은 사립고교 신입 기간제 교사로 사학비리에 맞선다. 그동안 주력해온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벗어나는 변화를 시도한다.

복귀 소식만으로도 김태희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2017년 1월 가수 겸 연기자 비(정지훈)와 결혼하고 두 딸을 낳은 뒤 가정과 육아에 집중해온 그가

손예진 김태희 서현진

2015년 ‘용팔이’ 이후 5년 만에 내년 2월 tvN ‘안녕, 엄마’를 통해 복귀한다. 남편과 자식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난 엄마가 환생하기 위해 49일간 겪는 에피소드를 다루는 드라마에서 실제로 두 아이의 엄마인 그가 선보일 모성애의 휴먼 코믹 연기가 기대를 모은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이번엔 5인조…더 농염해진 걸그룹 AOA

26일 음반 ‘뉴문’ 내고 새 출발
SNS·예능 출연 등 공격적 행보

5인조로 팀을 재편한 걸그룹 AOA 혜정·지민·찬미·유나·설현(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이 ‘달 사냥꾼’으로 변신한다. 1년 6개월 만인 26일 신곡 ‘날 보러 와요’를 공개하며 이미지 변신에 나선다.
사진제공 | FNC엔터테인먼트

걸그룹 AOA가 제2막을 시작한다.

올해 데뷔 7년째를 맞이한 이들은 26일 여섯 번째 미니음반 ‘뉴 문’(NEW MOON)을 발표하며 ‘뉴(NEW) AOA’로 탈바꿈한다.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된 것은 최근 화제 속에 종영한 엠넷 걸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 ‘퀸덤’을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재확인했고, 특히 멤버들이 잇달아 탈퇴해 5인조로 축소, 팀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2012년 데뷔한 AOA는 8인조로 출발했지만 2016년 메인보컬 초아를 시작으로 유경, 민아 등이 탈퇴하면서 현재 지민, 유나, 혜정, 설현. 찬미 등 5명만 남았다.

지난해 5월 ‘빙글뱅글’ 이후 1년 6개월 만에 발표하는 이번 앨범은 8인조에서 5인조가 된 후 처음 선보이는 신보라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은 새 앨범에 AOA의 섹시한 이미지와 데뷔 7년째를 맞이한 멤버들의 농염함을 가득 담았다. 타이틀곡 ‘날 보러 와요’를 통해 AOA의 우아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티저 이미지와 영상 속에서 멤버들의 각오를 엿볼 수 있다. 앨범 콘셉트에 따라 ‘달 사냥꾼’(문 헌터)으로 변신한 멤버들의 색다른 모습이 이색적이다.

AOA는 새 앨범을 발표하며 공격적인 행보도 시작한다. 그동안 설현 위주로 솔로 활동이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엔 걸그룹 AOA의 장점을 제대로 부각시키기 위해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다. 또 공식 팬클럽 3기를 모집해 팬덤도 확장해나간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영화 ‘포드 V 페라리’의 한 장면

‘전설의 레이스’를 즐겨라

영화 ‘포드 V 페라리’ 내달 4일 개봉

광속의 레이스가 스크린에 펼쳐진다. 세계 3대 자동차 레이싱 대회로 꼽히는 르망 24시간 레이스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짜릿한 경주로 기록된 1966년 명승부를 담은 영화 ‘포드 V 페라리’가 12월4일 관객을 찾는다.

겨울 극장가의 포문을 여는 ‘포드 V 페라리’는 미국과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의 자존심을 건 대결 실화를 옮긴 작품이다. 숱한 흥행영화를 배출한 할리우드 스타 맷 데이먼과 크리스찬 베일의 첫 만남으로도 관심을 더한다.

영화는 1960년대 미국 포드사가 판매 활로 개척을 위해 유럽 스포츠카 페라리와 인수 합병을 시도하는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막대한 자본력에도 계약에 실패한 포드는 자존심 회복을 위해 ‘지옥의 레이스’로 불리는 르망24시간 레이스에 도전장을 내고, 6년간 1위를 지킨 절대 강자 페라리에 맞선다.

맷 데이먼과 크리스찬 베일은 불가능에 도전한 실존인물을 맡았다. 각각 자동차 디자이너와 전설의 레이서 역을 맡은 두 배우는 극한의 상황을 딛고 우정을 쌓아간다. 크리스찬 베일은 “파란만장한 관계와 우정을 통해 놀라운 목표를 달성한 언더독들의 이야기”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포드 V 페라리’는 르망24시간 레이스를 스크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색다른 기회도 제공한다. 매년 6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3명의 레이서가 24시간동안 1만 3629km의 서킷을 가장 많이, 가장 빨리 질주해야하는 극한의 경주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4

연기자 한다감, 내년 사업가와 결혼

연기자 한다감(본명 한은정)이 1살 연상의 사업가 남자친구와 내년 1월 결혼한다. 소속사 비비엔터테인먼트는 18일 “한다감이 2020년 1월5일 서울 모처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백년가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신랑은 깊은 배려심과 듬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1년간의 진지한 만남 끝에 결혼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결혼식은 양가 부모와 가족, 친지,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1999년 MBC ‘사랑을 위하여’로 데뷔한 한다감은 SBS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리턴’ 등에 출연했고, 지난해 12월 개명했다.

조우엽·양태선, 소속사 폭행 고소

그룹 TRCNG의 멤버 조우엽과 양태선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속사 관계자 박 모 이사 등 2명을 상습아동학대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강은 18일 “조우엽, 양태선이 4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관계자 2명에 대한 고소장을 1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이사는 ‘매 맞기 내기’로 상습적으로 멤버를 폭행했고, 조우엽은 6월 안무팀장인 윤 모 씨에 철제의자로 맞아 전치 2주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씨엔블루 정용화, 아시아투어 돌입

최근 전역한 그룹 씨엔블루의 멤버 정용화가 아시아투어에 돌입한다. 18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용화는 12월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단독콘서트 ‘스틸 622 인 서울’을 개최한다. 정용화는 서울을 시작으로 태국, 대만, 필리핀 등지에서 콘서트를 이어나간다. 군 전역 후 첫 투어이자 약 4년 만에 하는 솔로투어다. 2010년 씨엔블루로 데뷔한 정용하는 SBS ‘미남이시네요’ ‘넌 내게 반했어’ 등을 통해 연기자로 활동했다. 강원 춘천 육군 2군단 702특공연대에서 복무한 뒤 3일 전역했다.

정진운 “정준영 단톡방 멤버 아냐”

가수 정진운이 4월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불법 촬영 영상을 공유한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대화방의 멤버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8일 “정진운이 속했던 단톡방은 예능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촬영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는 목적이었으며 사건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여전히 사건과 엮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며 “무분별한 악의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운은 3월 입대해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편집 | 좌혜경·유진한 기자

연예
9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스포츠동아